

제3장 언론 · 출판

일제강점하의 우리나라 언론은 반일 계몽운동에 앞장섰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하지만 우리의 언론은 1945년 8.15 해방과 함께 1950년 6.25전쟁, 1960년 4.19혁명을 거치면서 현대적 의미의 언론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발맞춰 광역 시·도를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들도 이 시기를 전후해 지방방송국 개국, 지방신문사 창간, 지역 주재기자 파견 등의 언론환경 변화를 보이게 된다.

포항은 1957년 지금의 한국방송공사(KBS)가 처음으로 이동 방송 차에 장비를 갖추고 인근 시·군을 옮겨 다니면서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다. 시청지역은 포항, 영일, 경주, 월성, 울진, 영덕, 울릉 등 경북 동해안 시·군이었다. 그러나 민간방송인 지금의 포항문화방송(포항 MBC)은 한참 뒤인 1971년 10월에야 포항인근 시·군을 대상으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다. 이들 양대 방송은 그 후 방송국 승격, 중계소 설치, FM 방송, TV방송, 신사옥 준공 등을 거치면서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지역의 양대 지상파 지방방송국으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

이와 함께 1995년 3월에 HCN경북방송(구 KCB)이 포항에 첫 케이블방송을 시작함으로써 케이블방송 시대를 열었다. 또 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PCB)도 2001년 7월 본방송을 시작함에 따라 양대 케이블방송 체제로 개편됐다. 그 뒤 기독교포항방송국(CBS), 포항극동방송, 포항불교방송, 인터넷방송 등의 종교 및 인터넷 방송들도 잇따라 개국, 라디오와 인터넷으로 방송을 시작함으로써 포항의 방송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한편 신문은 1960년대 중·후반부터 중앙일간지 및 대구권일간지들이 포항에 지국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지국은 단순한 신문보급소 역할로 상주기자들은 한참 뒤에야 파견 근무를 하게 된다. 즉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서울 중앙지는 물론 대구매일신문, 영남일보 등 대구지역 일간지들도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에 걸쳐 포항에 주재기자를 상주시키기 시작했다.

포항지역 최초의 신문은 1966년에 창간된 <동해경제신문>으로 동지교육재단 설립자인 고(故) 하태환 선생이 발행했다.

포항의 언론은 1980년 신군부의 언론사 통폐합 조치로 중앙과 마찬가지로 일대 전환점을 맞는다. 당시 전국 64개의 언론사는 결국 신문사 14개, 방송사 2개, 통신사 1개로 통폐합됐다. 즉 신군부의 ‘1도(道) 1사(社)’ 지침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는 유일

하게 대구매일신문 이외 신문은 모두 폐간되고 말았다. 따라서 포항에는 KBS와 MBC 방송국을 비롯하여 매일신문과 연합뉴스 기자들만 포항에서 취재활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우리나라는 언론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1988년 6공화국 출범과 함께 신문사 복간 등 언론자유화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따라 포항의 언론환경 역시 중앙 언론과 마찬가지로 또 한번의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중앙 및 대구권 일간신문들의 복간 및 창간이 잇따르는 한편 포항에도 주재기자를 상주시키게 된다. 하지만 1988년 언론자유화와 함께 포항 언론의 가장 큰 변화는 일간 및 주간 신문들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週刊東海>(발행인 장성호), 1989년 <浦項新報>(발행인 최종태) 등 주간지들이 잇따라 창간된다.

이와 함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일간 신문들의 탄생을 맞게 된다. 즉 지금의 <경북매일신문>이 1990년 9월에 포항지역 최초로 8면의 일간지를 창간하게 된다. 현 <경북일보> 역시 1990년 5월에 <포항신문>이란 제호로 창간호를 주간으로 발행했으며, 그 후 1993년 12면 일간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현 <경북도민일보>도 지난 2004년 3월에 <동남일보>란 제호로, 현 <일간 대구·경북>이 2006년 6월 경주에서 <경상매일>이란 제호로 각각 창간호를 발행,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포항은 1972년 포스코 포항제철소 준공 이전까지만 해도 인구 10만의 조그만 어촌도시에 불과했다. 그러나 포항제철소의 확장과 포항철강공단 입주 업체 증가 등으로 점차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 국제적인 철강도시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포항의 현대적 언론 역사 또한 포항시가 본격적인 철강 산업도시로 탈바꿈하면서 그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포항의 신문은 앞에서 언급한 4개 종합 일간 신문을 비롯한 주간지, 대구 및 중앙일간지들의 포항본부 설치 또는 지역담당 기자 파견 등으로 그 어느 중소도시보다 활발한 취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 역시 포항MBC·KBS포항방송국 등 양대 지상파방송국을 비롯하여 경북케이블TV·한국케이블 포항방송(PCB) 등 케이블방송, CBS포항방송국·포항극동방송·포항불교방송 등 종교방송국, 인터넷방송 등이 치열한 보도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포항에는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상주인원만 400여 명에 이르는 등 비슷한 규모의 타 중소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포항이 경북 제1의 도시이자 포스코로 대변되는 세계적인 철강도시, 그리고 매체의 가시성 및 취재·보도권역이 인근 시·군을 흡수하는 본사 및 본부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절 언론

1. 방송

1) 포항방송국(포항 KBS)

포항방송국은 1957년 10월1일 포항시 덕수동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이동 방송차에 방송장비를 설치해 포항·영일·영덕·울진·울릉 지방을 비롯해 경주시와 월성군 등 경상북도 동해안 일대를 대상으로 이동 방송을 하다가 1961년 6월 22일 지방방송국으로 승격됐다. 1961년 8월 1일 호출부호를 HLCP로 지정해 정규 방송을 시작했다. 1966년 2월 2일부터는 포항시 남구 해도동 483-9번지로 청사를 이전해 지역방송 사업을 정착시켰다.

1967년 6월 6일 울진중계소 문을 열고, 1971년 11월21일 1TV(CH : 4,300W 출력) 조항산중계소(鳥項山中繼所)를 건립했다. 1975년 10월 21일 울릉중계소의 출력을 1KW 수준으로 증강시킴과 동시에 울릉중계소 청사를 준공했으며, 1975년 12월 27일에는 출력 수준을 10KW로 증강시켰다. 1976년 3월 30일 포항시 해도동 청사에 연주소를 신설하고, 청사를 증축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 대보송신소(大浦送信所)를 설치해 10KW로 출력을 증강함으로써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난시청 해소에 큰 몫을 해 오고 있다.

1978년 11월23일 포항 910KHz를 1035KHz로, 울진 1380KHz를 1305KHz로, 울릉 1320KHz를 1323KHz로 주파수를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시설을 보강하고 출력을 증강해 경북 동해안 지방의 공영방송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93년 9월 24일 포항시 남구 상도동 655번지에 신사옥을 준공해 종합 방송국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됐다.

다양한 방송기능 외에도 지방문화 창달을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해 왔다. 개국과 함께 어린이합창단, 방송극회, 전속가수회, 무용단 등을 구성해 향토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예총포항지부와 한국음악협회 포항지부 창립, 포항시립극단 창단의 산파역을 담당했다.

1999년에는 포항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포항50년’을 선상 TV토론으로 60분간 방송하고, 2007년부터는 특집 프로그램 제작에 힘써, ‘울진 친환경 생토미’, ‘해양바이오가 미래다’, ‘울릉 해녀 할머니 그녀만의 바다’, ‘죽도시장 관광 전략 이해법’ 등을 만들었다. 2009년에도 ‘즐넘기에 살고 즐넘기에 죽는다’는 울릉 학생들의 끝없는 도전편을 제작해 전국권역 ‘30분 다큐’ 프로그램에서 소개했다.

2000년대 이후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를 포항종합운동장 등지에서 야외 중계와 응원전을 펼치면서 시민들과 즐거움을 함께 했으며, 2006년에는 청사건물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했다. 포항시 6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한 ‘열린 음악회’도 9월 8일 10년 만에 다시 포항에서 열었다.

한국방송공사 포항방송국의 조직은 현재 방송부, 기술부, 총무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울릉중계소, 울진중계소, 조항산송신소, 시설 관리단을 두고 있다. 지역 프로그램은 1주일 기준으로 TV는 뉴스 100분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고, 라디오는 뉴스 225분 프로그램 405분을 제작하고 있다.



● KBS 포항방송국 전경

(1) 연혁

- 1957. 10. 1. 포항시 덕수동에 이동송신차로 정착. 방송개시
- 1961. 6. 22. 포항방송국 직제 공포(최초개국일)
- 1961. 8. 1. 제1라디오 호출부호 HLCP로 지정
- 1966. 2. 2. 포항시 해도동 483-9번지로 청사이전(콘센트)
- 1967. 6. 4. 울진중계소 제1R 개소 (호출부호 : HLSV/1380kHz/1kW)
- 1971. 11. 21. 조항산중계소 제1TV 개소(호출부호 : HLSV-TV/CH4/300W)
- 1975. 10. 21. 울릉중계소 제1R (호출부호 : HLCU/1320MHz/1kW)
- 1976. 3. 30. 포항방송국 현주소 청사증축

- 1978. 11. 28. 제1R 주파수변경(포항 : 910kHz ⇄ 1035kHz,
울진 : 1380kHz ⇄ 1305kHz, 울릉 : 1320kHz ⇄ 1323kHz)
- 1984. 12. 1. 조항산중계소 및 TVR시설 KTA에 이관
- 1988. 6. 1. 조항산중계소 및 TVR시설 KTA로부터 환원
- 1988. 6. 10. 포항방송국 신청사 부지매입
(포항시 남구 상도동 655번지 부지 : 1,882평)
- 1991. 1. 18. 신청사 기공식
- 1993. 9. 24. 신청사 준공식
- 1994. 6. 22. 제1TV 및 표준FM 로컬방송 실시
- 1994. 11. 1. 조항산 중계소 명칭을 조항산 송신소로 개칭
- 1995. 8. 20. 울진중계소 원격제어 운용
- 1995. 10. 27. 독도 1TVR신설 / 영해, 온정 TVR출력증강 및 채널변경
(영해 : CH7 ⇄ CH48/100W, 온정 : CH12 ⇄ CH56/100W)
- 1995. 12. 20. 사랑의 소리방송 개국
- 1996. 7. 8. 울릉지역 1TV포항 로컬방송 송출
- 1997. 12. 27. 포항 송출운용센터 설치
- 1998. 4. 20. 조항산 송신소 원격제어 운용
- 2002. 12. 31. 현주소 청사 리모델링
- 2005. 12. 22. 포항DTV 방송 개국 (CH : 1TV 42, 2TV 50, 교육TV 52)
- 2006. 11. 30. 울릉중계소 FM 신설 (2R, 음악FM)
- 2007. 12. 28. 울진지역 표준 FM 방송 개시
- 2008. 12. 28. TV주조 제작시설 디지털 전환
- 2008. 12. 30. 조항산 DMB 방송 개국 (CH · 7(B))

(2) KBS 포항방송국 방송구역

매체별	방 송 구 역
제1TV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독도일원, 경주시 일부
제2TV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경주시 일부
교육TV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경주시 일부
제1라디오	포항시, 울릉군, 울진군, 영덕군 일부, 영천시 일부
표준FM	포항시, 영덕군 일부, 울릉군, 경주시 일부
음악FM	포항시, 영덕군 일부, 경주시 일부
교육FM	포항시, 영덕군 일부, 울릉군, 경주시 일부

(3) TV로컬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주요내용
KBS뉴스네트워크	월~금 19:20~19:25	경북 동부지역 뉴스
KBS뉴스 9	월~금 21:30~21:45	경북 동부지역 뉴스

(4) AM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주요내용
아침의 광장	월~금 08:35~08:58	날씨, 통신원의 지역소식, 중계차 연결 등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KBS뉴스와이드 2부(참여)	월~금 11:10~11:20	대구총국 참여(도내 네트워크) - 포항지역 현안과 화제, 정보
KBS뉴스와이드 2부 (울릉 로컬)	월~금 11:10~11:58	도내 네트워크 연결(포항, 대구, 안동 각2분)과 울릉지역 현안과 화제, 정보
동해안 네트워크	월~금 15:10~15:58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시사와 생생한 생활현장 정보
오전7시 뉴스	월~토 07:10~07:15 일 07:05~07:10	경북 동부지역 뉴스
오전9시 뉴스	월~금 09:05~09:10 토~일 09:00~09:05	경북 동부지역 뉴스
정오종합뉴스	월~금 12:15~12:20 토~일 12:10~12:15	경북 동부지역 뉴스
오후3시 뉴스	월~일 15:05~15:10	경북 동부지역 뉴스
오후5시 뉴스(참여)	월~금 17:05~17:10	대구총국 참여(도내 네트워크)
오후6시 뉴스	월~금 18:05~18:10 토~일 18:00~18:05	경북 동부지역 뉴스
오후10시 뉴스	월~금 22:05~22:10	경북 동부지역 뉴스

2) 포항문화방송(포항 MBC)

포항문화방송은 국내 민간방송의 막내로 1971년 10월 1일 개국했다. 1968년 4월 15일 울산민간방송이 개국한 뒤 울산지역 인사들이 중심이 됐다. 호출부호 HLAV, 주파수 1110KHz, 출력 10Kw, 당시 인력은 27명이였다.

1958년 부산문화방송이 한국 최초의 민간방송으로 개국한 데 이어서 1960년대 들어 서울과 대구, 대전, 전주 등 국내 주요도시에 민간방송이 속속 개국하던 흐름을 탄 것이다. 포항문화방송은 포항시 북구 상원동 478-6번지 육거리 인근 수성당 한약방 2층 건물 195제곱미터를 임대하여 방송을 시작했다. 당시 포항시를 비롯해 경주시, 월성군, 영일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2개 시, 5개 군을 가칭지역으로 25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1일 19시간 30분의 방송을 했으며, 이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7시간 42분을 자체 프로그램과 뉴스로 제작, 로컬방송에 힘을 기울였다.

포항문화방송은 개국 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로 신라문화제의 꽃인 화랑과 원화 선발대회를 주관했는가 하면, 해마다 서막제를 현지 생방송으로 중계해 지역민들이 함께 호응하는 문화제가 되게 했다. 또한 1971년 12월 8일 파월 청룡부대가 개선했을 때는 포항항 도착에서부터 시가지 퍼레이드까지 생생한 실황중계 방송을 하여 참전해병용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시민들로부터 포항문화방송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기도 했다.

1990년 ‘세계철강산업, 그 현장을 가다’ 6부작을 시작으로 2001년 ‘왕들의 비밀’, 2003년 ‘경주 남산 4부작’ 2004년 ‘독도’ 2부작, 2008년 ‘위기의 대계’ 2부작 등 해마다 굵직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지역사회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80년부터는 어린이들의 예능실기와 정서함양을 위해 해마다 어린이 달인 5월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또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 수해의연금 등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을 주도해 지역사회의 화합과 애국심 함양에 크게 이바지했다. 2006년 대한민국 창작 포크가요제인 ‘독도 타래 어울림’ 행사를 여는 등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행사도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 포항문화방송 전경

포항문화방송은 1971년 창사 이후, 1983년 FM방송을 시작하는 한편 같은 해 TV중계소를 설치해 종전에 대구에서 받던 전파를 포항에서 보내기 시작했다. 1986년 부터 6천 6천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현대식 사옥을 준공하고 1987년 11월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TV 연주소를 개설했다. 또 1999년 표준 FM을 개국하고, 2012년 아날로그 종료시점에 맞춰 2005년부터 아날로그보다 화질이 훨씬 나은 디지털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차량이나 핸드폰 및 노트북 등 이동하면서 TV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를 2008년 개통하여 시청자들이 보다 손쉽게 TV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자체제작 프로그램으로는 1주일 기준으로 TV는 보도 프로그램이 434분, 편성제작 프로그램이 886분, 라디오는 AM 1936분, FM은 1758분을 제작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방송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1) 연혁

- 1969. 8. 가칭 동해방송주식회사 설립발기
- 1971. 4. 영해방송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설립등기
- 1971. 9. 경주 안강 송신소 준공
- 1971. 9. AM방송국설치허가(1107KHz, 10KW)
본사 : 포항시 상원동, 송신소 : 경주시 안강읍
- 1971. 10. 포항문화방송주식회사 상호변경 개국
- 1978. 12. 포항 연일송신소 준공
- 1980. 11. MBC 가맹사에서 계열사로 변화
- 1983. 9. FM방송 개국
- 1983. 11. TV중계소 개국(6CH,1KW)
- 1986. 11. 포항시 대잠동 사옥 준공 이전
- 1987. 11. TV 현주소 개국
- 1995. 4. 일본 TSS 방송사와 자매결연 체결
- 1995. 8. 중국 길림성 훈춘방송과 우호제휴 체결
- 1999. 11. 포항MBC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
- 1999. 11. 표준FM 개국(주파수 100.7MHz)
- 2001. 9. 울진중계소 신축 준공
- 2001. 10. ‘30년 사사’ 발간
- 2002. 4. 자회사 (주)포항 시네마 설립 개관
- 2002. 10. 울릉FM중계소 개소(표준FM 98.5MHz, 음악FM 90.9MHz)

- 2005. 10. 중국 대련 시 광파전시국과 우호관계 협의 체결
- 2005. 12. DTV 개국
- 2007. 1. 경주, 울진 DTV 개소
- 2008. 5. 지상파 DMB 방송 개국

(2) 포항문화방송 송·중계소 현황

① TV채널

지 역	TV Ch	송신소/중계소
포항·경주·영덕 일부	Ch 6	조항산 TV송신소
경주시 일부	Ch53	경주 TV중계소
울진읍·기성·원남·북면·근남면	Ch45	울진 현중산 TV중계소
울진군 후포·온정·평해면 일부	Ch31	온정 TV중계소
영해·병곡면·후포	Ch35	영해 TV중계소
경주시(보문·외동·불국동·천북)	Ch31	보문 TV중계소
경주시 양남·양북면 일부	Ch49	외동 TV중계소
경주시 감포읍·양남·양북면 일부	Ch43	양북 TV중계소
울릉군 서면 일부(사동·남양)	Ch39	가두봉 TV중계소
울릉군 일부(저동·도동)	Ch27	울릉 TV중계소
안강·대보·기계·강동·흥해	Ch35	안강 TV중계소

② TV로컬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주요내용
노소노소	금 18:50~19:45	포항, 대구, 안동 mbc 공동제작으로 2개 팀이 마을 방문해 특산물 ucc를 만들어 대결하고 초등학교들이 그 특산물로 음식을 만들면서 고향사랑을 느끼도록 함
우리동네 왜 왔니	토 09:00~09:55	마을과 특산물을 소개하고 주민들 장기 자랑
생방송 전국시대	월~금 17:35~18:30	공동 제작으로 다양한 화제와 가볼만한 곳 소개
놀라운 지구 경이로운 자연	화 18:50~19:45	외주 프로그램
꼭 가볼만한 세상의 그곳	목 08:30~09:30	외주 제작
MBC TV 특강	금 08:30~09:30	각 분야 덕망 있는 명사초빙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전달
리얼 미식기행 셰프	금 21:55~22:55	외주 프로그램
MBC 뉴스투데이	월~금 07:10~07:50	지역뉴스
MBC뉴스	월~금 10:50~11:00	지역뉴스
MBC뉴스데스크	월~금 21:30~21:45 토~일 21:25~21:35	지역뉴스
보도특집 (월1회)	금 21:55~22:55	토론을 통해 지역현안을 심층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 제시

③ 라디오 주파수

구분	지 역	주 파 수
AM	포항·경주 일원, 영천·영덕·청도군 일부	1107KHz
FM	포항시 일원, 경주·영천시·영덕군 일부	97.9MHz
표준FM	포항·경주·영천·영덕	100.7MHz

④ AM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주 요 내 용
즐거운 오후 2시 박용수, 이해리입니다.	월~금 14:25~15:00 15:05~16:00 토~일 14:10~15:00 15:05~16:00	청취자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지역 사회 현안들에 대한 시의성 있는 비판 기능과 오락의 장을 제공
라디오 열린세상 전세용입니다	월~금 18:05~19:00	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
별이 빛나는 밤에	월~일 22:05~23:00 23:05~24:00	1인 DJ가 진행. 청소년 대상 심야 음악방송을 강화성인 참여도 유도
57분 교통정보	월~토 07:39~19:57	출 퇴근 시간 중심으로 1일 14회 교통정보 제공
아침 종합뉴스	월~금 07:05~07:15	지역뉴스
정오뉴스	월~금 12:15~12:25 토~일 12:08~12:15	지역뉴스
3시뉴스	월~일 15:00~15:05	지역뉴스
5시뉴스	월~금 17:00~17:05	지역뉴스

⑤ FM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주 요 내 용
FM모닝쇼	월~일 07:00~09:00	기상 정보와 클래식, 팝, 가요, 가곡 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청자에게 즐거움 제공
정오의 희망곡	월~일 12:00~14:00	나른해지기 쉬운 시간대 활력과 정보를 주는 다양한 노래를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57분 교통정보	월~토 07:57~19:57	아침 출근시간부터 저녁 퇴근시간까지 1일 13회 지역 교통상황 전달

3) TBC 대구방송

TBC는 공보처 지역방송정책에 따라 1994년 8월 10일 대구경북권역의 지역민영방송사로 선정되어 9월 9일 대구경북 43개 법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어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201~9번지에 연주소를 설립하고 1995년 5월 14일 채널 19로 첫 전파를 발사했다. 지역민들의 성원 속에서 TBC는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기간방송으로 거듭나자는 각오로 이제 창립 15주년을 맞았다.

특히 1995년 6월 1일 경북 동남권의 중심지인 포항 동부취재본부(북구 죽도동)에 뉴스스튜디오 및 방송편집실을 설치하고 포항을 비롯한 인근지역 소식을 현지에서 취재하고 뉴스로 방송하였다.

당시 TBC는 매일 아침뉴스에서 포항 동부취재본부를 비롯한 3개 취재본부에서 아침뉴스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방송하는 등 포항과 지역의 소식을 경북 전역에 방송하는데 일조했다. 이어 2000년 7월 경북케이블TV 사옥으로 동부취재본부를 이전하였고, 2003년에는 대도동의 (주)KT 건물로 이전하여 동부 취재본부를 운영해왔으나 2008년 11월 지사는 잠정적으로 본사와 통합하고 취재인력은 상시 출퇴근 형태로 포항의 취재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TBC는 포항지역의 문화창달과 여론수렴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3년도 4월 포항실내체육관에서 미스 경북선발대회를 개최하였고, 2005년 창사10주년을 기념하여 ‘빛으로 세계로’를 주제로 특집공연을 개최하였다. 또한 2006년 1월 1일 신년특집으로 ‘신동해안 시대를 연다’를 통해 동해안 발전을 통한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동년 4월 포항의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을 주제로 ‘철강산업 위기를 넘어’ 1·2부를 방송하고, 2008년 1월 신년특집 ‘숫불 40년 철강코리아’를 제작하여 지역기업이자 국민기업인 포스코의 나아갈 방향을 진단했다. 같은 해 신년특별 기획 대토론회 ‘환동해의 리더 포항’을 통해서 환동해의 리더로 거듭나는 포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각계의 인사들과 토론회도 가졌다.

2009년 5월 창사 14주년 특별기획 ‘신재생에너지를 잡아라’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친환경산업 활성화를 기치로 포항이 중심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특별히 2006년 10월 HD특별기획 독도바다사자 1·2부를 제작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굴하고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이 프로그램은 2007년도 방송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 TBC 포항지역 송·중계소 현황

① 송·중계소 현황

(2009. 8. 현재)

송·중계소명	주파수/ 송신출력	무선국소재지/ 방 송 구 역
연일 송신소(AM)	1107KHz 10KW	경북 포항시 연일을 증명동 산38 포항·경주시 일원, 영천시·영덕·청도군 일부
조항산 FM송신소	97.9MHz 3KW	경북 포항시 동해면 석동리 산94 포항시 일원, 경주·영천시·영덕군 일부
조항산 TV송신소	Ch 6 3KW	경북 포항시 동해면 석동리 산94 포항·경주시·영덕군 일부

② TV채널

지 역	TV Ch	송신소/중계소
포항·경주·영덕 일부	Ch 6	조항산 TV송신소
경주시 일부	Ch53	경주 TV중계소
울진읍·기성·원남·북면·근남면	Ch45	울진 현종산 TV중계소
울진군 후포·온정·평해면 일부	Ch31	온정 TV중계소
영해·병곡면·후포	Ch35	영해 TV중계소
경주시(보문·외동·불국동·천북)	Ch31	보문 TV중계소
경주시 양남·양북면 일부	Ch49	외동 TV중계소
경주시 감포읍·양남·양북면 일부	Ch43	양북 TV중계소
울릉군 서면 일부(사동·남양)	Ch39	가두봉 TV중계소
울릉군 일부(저동·도동)	Ch27	울릉 TV중계소

③ 라디오 주파수

구분	지 역	주 파 수
FM	포항시 일원, 경주·영천시·영덕군 일부	97.9MHz

4) HCN 경북방송

HCN 경북방송(前 경북케이블TV방송)은 지난 1995년 3월 우리지역 최초로 다채널 방송시대를 열었다.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HCN 경북방송은 포항과 영덕, 울진, 울릉을 방송 권역으로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다. 현재 채널 6번을 통해 일일 18시간씩 지역뉴스와 교양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며, 지역소식은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HCN 뉴스와이드(15분), 뉴스N경제(30분), HCN세상만사(40분), 뿔다 노래방(40분), 현장출동 여기는(20분), 시청자세상! 내가 만든 TV(30분), 이성호의 바둑공개강좌(30분), 아이러브 유치원(40분), HCN아카데미(60분), 신바람 노래교실(40분) 등의 고정프로 외에 생활정보 방송과 포항시 의회 시정에 관한 질문 생중계와 행정사무감사 생중계를 비롯 각종 중계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면서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하이로드(HyRoad) 디지털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HCN 경북방송 전경

• 연 혁

- 1993. 10. 법인설립
- 1994. 3.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허가 취득
- 1995. 3. 본방송 송출 개시(개국)
- 1997. 3. 방송권역 추가편입(울진, 영덕)
- 2002. 8. (주)현대백화점 계열사 편입
- 2006. 3. 법인명 변경 (주)경북케이블TV방송 → (주)HCN경북방송
- 2006. 12. ISP 시범서비스 개시
- 2007. 2. ISP 유료서비스 개시
- 2008. 1. 인터넷 전화사업 개시

5) 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은 포항, 영덕, 울진 지역에 자가 광케이블 전송망을 구축해 지난 2001년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24시간 채널 6번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은 뉴스, 문화, 교육,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PCB 뉴스’(15분)와 ‘주간뉴스타임’(15분)으로 지역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고 있으며, ‘기자리포트 시선’(30분)과 ‘주간인물’(30분)으로 지역의 현안을 둘러본다.

‘건강 365일’(30분), 문인들의 향기가 느껴지는 ‘문학 산책’(30분) 음악세계로 초대하는 ‘작은 공간’(30분), ‘뮤직스토리’(30분)이 지역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생활법률’(5분),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20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 맛에 산다’(30분), ‘즐거운 인생’(30분)과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인 ‘도전! 내가 만든TV’(15분)로 지역민들과 함께 한다.

특별방송에는 새해 첫 일출과 함께하는 ‘생방송 한반도의 아침! 여기는 호미꽃’과 ‘시의회 본회의 열린 의정’이 있다. 또 매년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펼치고 있고, 미래의 지도자가 될 어린이들을 위해 ‘엠버서더 어린이 영어 스피치대회’를 열어 청소년 교육에 긍정적인 힘을 보태고 있으며 ‘PCB·SBC 아마추어프로골프대회’로 스포츠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은 경영기획팀, 마케팅팀, 고객관리팀, 네트워크 운영팀, 방송기술팀, 보도제작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한국케이블TV 전경

• 연혁

- 2001. 4. 법인 설립
- 2001. 7. 본방송 개시
- 2001. 10. 포항~울진 간 광케이블 전송망 구축
- 2001. 11. 영덕, 울진지역 케이블 방송 서비스 개시
- 2002. 8. 디지털 음악방송 개시
- 2002. 9. 디지털 본방송 개시
- 2003. 7. 자가ISP 지앤씨 넷 서비스 시작
- 2004. 10. HD방송 서비스 개시
- 2005. 7. 자가ISP 지앤씨 넷 하나로 텔레콤에 매각
- 2006. 7. 기간통신사업 허가

6) CBS 포항방송국

포항CBS는 지난 2000년 10월 24일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경북 동부지역 주민을 가청대상으로 기독교 복음전파와 지역의 올바른 언론창달을 위해 개국했다.

1999년 7월 6일 기독교방송의 경북 동부지역 난청해소를 위해 기독교포항방송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0년 3월 10일 기독교포항방송 운영이사회를 공식 구성하고 운영이사장에 김현호 장로를 선임하였다. 포항CBS 이사회는 포항제일교회, 포항중앙교회, 기쁨의 교회, 포항동부교회, 포항송도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대동고등학교, 선린대학, 포항대학, 선린의료원, 경동노회, 경주제일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대도동 매일신문사 빌딩4층을 현주소로, 흥해읍 대련리의 도음산에 송신소를 두고 2000년 5월 24일 출력 3Kw, 호출부호 HLCB-FM, 주파수 91.5MHz로 정보통신부의 방송국 설립허가를 받았다.

포항CBS는 매일 오전 7시50분, 낮 11시50분, 오후 6시 50분에 로컬 종합뉴스를 하고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에 5분 뉴스를 하고 있다. 또 오후 5시 5분부터 6시까지 지역 시사프로그램 ‘사람과 세상’을 방송하고,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유상원의 해피타임’이란 선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 야후 등 인터넷 포털과 연계해 지역의 시사와 정보를 전국으로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해마다 3월에 ‘봄 음악회’, 7월에 ‘썸머 재즈콘서트’, 10월에 ‘창립기념일 음악회’, 12월에 경주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무료로 열어 지역민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7) 포항극동방송(FEBC)

극동방송은 1956년 12월 23일, 인천시 학익동에서 개국, 중국어, 러시아어, 몽고어, 영어, 한국어 등 5개 국어의 선교 프로그램을 송출하기 시작했으며, 개국 당시의 명칭은 북음주의 방송국으로 현재까지 순수 북음방송만을 해 왔다.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사의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최대의 기독교 전문방송이다

극동방송 포항지사는 포항시 남구 대도동 164-1번지에 연주소를 두고, 출력3kw로 2001년 11월 12일 첫 전파를 송출해 포항과 경주, 영덕과 영천, 대구 일부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을 가청권으로 기독교계의 확산과 기독교문화 창출과 발달에 기여해왔다. 개국 3년 6개월 만인 2005년 3월에 북구 덕산동 122-4번지에 신사옥을 마련해 연주소를 이전했다.

극동방송의 특징은, 상업 광고 없이 운영위원과 전파선교사로 불리는 후원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24시간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기독교계의 화합과 양질의 문화보급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들을 이어가고 있다.

결혼예비학교, 자녀교육 워크숍, 가정회복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다. 영덕, 영천, 경주, 포항 시민 초청 음악회를 각각 개최했고, 장사상륙작전을 기리고 참전용사들을 위로하는 음악회를 처음으로 개최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또한 미국의 유명 중창단 콜로라도 남성4중창단 공연과 sbs오케스트라 초청공연, 가족뮤지컬 ‘솔티와 함께’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적 갈증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8) 인터넷 매체

급격한 IT산업의 발달과 컴퓨터의 보급 확대로 인터넷 매체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2002년 2월 인터넷 전문 뉴스매체인 오마이 뉴스가 창간돼 각 지방판을 오픈하면서 인터넷뉴스가 지방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됐다.

그 이후 포항은 지난 1999년 포항뉴스가 창간됐고 그 뒤를 이어 2005년 초 전국망을 갖춘 브레이크뉴스 대구 경북 판이 창간을 하면서 지방 인터넷매체와 전국 인터넷매체가 동반 활동을 해오며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제일 먼저 인터넷 뉴스에 불을 지핀 오마이 뉴스는 얼마 되지 않아 포항 판을 접었다.

또 PHNEWS, iKTV, 포항인터넷뉴스, YMCA가 발행하는 시민뉴스, 전국네트워크인 동아 방송 등도 있지만 열악한 수입구조 등으로 뉴스생산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 이어서 시민들의 정보창구로서의 역할에는 다소 미흡한 게 사실이다.

제일먼저 포항에 사이트를 띄운 포항뉴스 또한 기존의 우수한 언론사처럼 편집, 취재 등 일정한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없어 실시간 편집이 되지 않을뿐더러 현장 취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매체는 다른 매체와 달리 기존에 갖고 있는 컴퓨터를 뉴스 사이트에 등록하고 적은 인력을 활용해 다양한 뉴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제한된 광고 시장, 열악한 취재 환경 등으로 아직 시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리지 못한 현실은 인터넷 매체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2. 신 문

1) 종합일간지

(1) 경북매일신문

경북매일은 1990년 9월23일 경북 최초의 종합일간지로 창간호를 발간했다. 2년여 동안의 준비 끝에 8면을 펴낸 이후 1993년 1월 지령 1000호를 냈다. 그 후 1997년 5월 지령 2000호를, 2007년 지령 5000호를 발행했다.

경북매일은 2007년과 2008년 2년 연속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됐으며, 2010년에는 창간 20주년을 맞게 된다.

현 (주)경북매일신문의 최대 주주는 포항의 삼일그룹으로 강석호 국회의원(영덕·울진·영양·봉화 지역구)이 실질적인 사주다.

• 연 혁

- 1989. 11. 21. (주)동경 설립신청
- 1989. 11. 24. (주)동경 설립등기, 대표이사 서종열 취임
- 1989. 12. 18. 공보처 등록신청서 제출
- 1990. 1. 30.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9의6으로 사옥 이전
- 1990. 2. 10. 일간신문 등록증 교부
- 1990. 3. 15. 정관변경(명칭) : (주)동경에서 (주)경북매일신문으로
정관변경(제호) : 경북매일신문에서 경북매일로
정관변경(위치) : 대도동 9의6에서 동빈로 1가 60의 14로
- 1990. 3. 21. 임종기, 유갑종, 한석봉, 김상순, 조옥근 이사 취임
- 1990. 4. 7. (주)경북매일신문 사옥 신축 기공식

- 1990. 9. 23. 창간호 발행(국일사 운전기 8면)
- 1991. 5. 16. 본사 사옥 준공(지상 4층)
- 1991. 9. 16. 전용선 대표이사 취임
- 1992. 4. 21. 장용석 대표이사 취임
- 1992. 6. 20. 김양일 대표이사 취임
- 1992. 11. 1. 12면으로 증면 발행
- 1993. 1. 20. 지령 1000호 발행
- 1993. 10. 15. 류갑종 대표이사 취임
- 1995. 4. 6. 이승완 대표이사 취임
- 1996. 5. 1. 16면으로 증면(동경기계제작소 4도2면 컬러운전기 도입)
- 1997. 5. 27. 지령 2000호 발행
- 1997. 9. 9. 장송림 대표이사 취임
- 2002. 9. 김기호 대표이사 취임
- 2007. 8. 21. 지령 5000호 발행
- 2008. 1. 31.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2년 연속)
- 2009. 7. 최윤채 부사장 취임
- 2009. 10. 최윤채 사장 취임

(2) 경북일보

경북일보는 1990년 5월 7일 <포항신문>이란 제호의 주간지로 창간호를 발행했다. 1년 뒤인 1991년 9월부터 주 2회, 이듬해 12월부터는 격일간으로 발행하다 1993년 5월7일부터 16면의 종합일간지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신문 제호도 창간 때의 포항신문에서 대동일보→ 경북대동일보→ 신경북일보→ 경북일보 등으로 바뀌었다.

특히 1997년 7월부터는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28면을 발행했으며, 지금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주 5일(매일 24면) 발행하고 있다. 현재 경북일보의 최대주주는 포항의 대아그룹이며, 황인찬 회장이 실질적인 사주이다.

• 연 혁

- 1990. 3. 7. 제1기 수습 및 경력기자 채용
- 1990. 5. 7. <포항신문>이란 제호로 창간호 발행(주간)
- 1991. 3. 20. 제2기 수습 및 경력기자 채용
- 1991. 9. 1. 주 2회 발행

- 1992. 7. 31. (주)포항신문으로 법인설립(1대 서창식 사장 취임)
- 1992. 9. 1. 제3기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 채용
- 1992. 12. 23. 격일간 발행
- 1993. 2. 22. 제4기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 채용
- 1993. 2. 27. <대동일보>로 제호 변경
- 1993. 4. 17. 제2대 정영현 사장 취임
- 1993. 5. 7. 12면 종합일간지로 발행
- 1993. 7. 19. 16면 16면 발행
- 1993. 12. 16. 제5기 수습 및 경력기자 채용
- 1994. 4. 15. 주간<대동건강저널> 발행(타블로이드 24면)
- 1994. 5. 7. 20면 발행
- 1996. 10. 1. <경북대동일보>로 제호 변경
- 1997. 5. 8. 제3대 신의웅 사장 취임
- 1998. 5. 1. 석간에서 조간으로 발행
- 1998. 7. 13. 제4대 이규삼 사장 취임
- 1999. 5. 25. <신 경북일보>로 제호 변경
- 2000. <경북일보>로 제호변경 및 제5대 최창호 사장 취임
- 2007. 제6대 정정화 사장 취임 및 사옥 상도동으로 이전
- 2009.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신문 선정
- 2009. 12. 정정화 논설주간 취임

(3) 경북도민일보

2004년 3월 30일 <동남일보>란 제호로 창간호(40면 중 16면 칼라)를 냈다. 이후 2006년 4월 30일까지 24면(16면 칼라)을 발행했다. 2006년 5월1일 <경북도민일보>로 제호를 변경하는 한편 지금까지 20면을 발행하고 있다.

2004년 7월 26일 지령 100호 특집호(40면 중 24면 칼라)를 발행한데 이어 2007년 12월 5일 지령 1000호를 발행했다.

<바른 신문> <용기 있는 신문> <가치 있는 언론>을 사시로 내 건 경북도민일보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의 3대 일간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경북도민일보는 경상북도 전문건설협회장을 지내고 (주)동원이란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김공가 회장이 실질적인 사주이다. 이와 함께 김호수 상무(편집국장)가 신문제작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다.

• 연혁

- 2003. 10. 1. 김공가 대표이사 취임
- 2003. 10. 5. 포항시 남구 해도2동 82의 4에 본사 사옥 마련
- 2003. 10. 10.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에 인쇄공장 부지 매입
- 2003. 12. 30. 미국산 하리스 윤전기(대판 40면 24면 칼라 인쇄) 도입
- 2004. 1. 5. 서울취재본부 개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의 11 금영빌딩)
- 2004. 1. 15. 공채 1기 수습 및 편집기자 채용
- 2004. 2. 10. 경북최초 IBM 컴퓨터 전산제작 시스템 도입
- 2004. 2. 13. 'New 2004' 신문제작 공정 온라인화 지면 제작
- 2004. 2. 20. 윤전기 설치 완료
- 2004. 2. 12.~3. 18. 소식지 6회 발행
- 2004. 3. 30. 창간호 발행
- 2004. 4. 10. 대구 및 경북북부(안동), 경주 취재본부 개소
- 2004. 6. 1. 공채 2기 수습 및 편집기자 채용
- 2004. 7. 26. 지령 100호 특집 발행
- 2005. 1. 구미취재본부 개소
- 2006. 5. 1. 매일 20면(칼라 6면) 발행
- 2007. 12. 5. 지령 1000호 특집호(28면중 12면 칼라) 발행
- 2009. 4. 제1회 영일만 사랑배 전국바둑대회 개최(포항실내체육관)

(4) 일간 대구경북

‘미래를 여는 정직한 신문’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2006년 6월 16일 경주시에서 <경상매일>이란 제호로 창간호를 발간했다. 그 이듬해 11월 16일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제호를 <대경일보>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2007년 12월 3일에는 지금의 <일간 대구경북>으로 변경하는 한편 포항시 남구 대잠동 955-12로 본사를 옮겨 지금에 이르고 있다. 회장이자 사주는 대덕건설을 경영하는 이춘부 전 포항시의원이다.

• 연혁

- 2006. 6. 16. (주)경상매일로 창간
- 2006. 9.~11. 휴간
- 2006. 11. 16. 대경일보로 제호변경
- 2007. 4. 17. 포항장애인 한마당 큰 잔치
- 2007. 12. 3. 일간 대구경북으로 제호 변경

- 2008. 11. 30. 제1회 일간 대구경북사장배 대구경북 오픈탁구대회 개최
- 2009. 3. 20. 제2회 일간 대구경북사장배 대구경북 오픈탁구대회 개최
- 2009. 12. 이길용 사장 취임

(5) 기타

<경북문화신보>가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서 지난 2007년 7월 일간지로 창간했다. 그러나 1년 여간 발행하다 경영상의 이유로 휴간한 후 폐간됐다. 이 신문은 포항 등지에서 아파트 건설업을 하던 이경렬씨가 실질적인 사주였으며, 전 경북일보 유수원 편집국장, 김종서 취재부장 등이 신문 창간 및 취재·편집을 주도했다.

2) 주간지

(1) 아시아 위클리 뉴스

1996년 6월 <포항신보>란 제호로 창간한 뒤 그해 9월 32면 타블로이드판형을 16면 신문 대판형으로 바꿨다. 2000년 8월 지금의 <아시아 위클리 뉴스>로 제호를 변경하는 한편 지면구성도 시사 및 교양 등 종합지 성격을 띠고 있다.

포항을 비롯 경북도내 시·군과 서울·부산 등에도 발송, 배포하고 있으며, 포항시 남구 해도1동 1의512번지에 본사가 있다. 대표이사는 언론인 출신인 이무식씨다.

(2) 경북제일신보

포항시 북구 신흥동 858번지에서 2009년 2월 창간했다. 사업가 강국원씨가 대표이사, 경북일보 취재부장 출신인 김종서씨가 취재국장을 맡고 있다.

(3) 동해경제신문

1966년에 창간호를 낸 <동해경제신문>은 4면의 주간지로 포항지역 최초의 신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국·한문 혼용체인 이 신문은 동지교육재단 이사장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고 하태환 선생이 사재로 발행한 것이다.

약 1만부정도를 발행해 포항·경주·영천·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시·군을 비롯해 서울, 강원도까지 우편으로 발송했다. 지역독자 뿐 만 아니라 출향인사들로부터도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1969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행이 중단되고 말았다. 제작에 관여한 인사는 발행인 겸 편집인 하태환, 편집부장 박이득, 광고부장 천종복, 사회부장 하주환씨 등이다.

(4) 주간동해

제5공화국(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제6공화국(노태우 대통령)의 출발해인 1988년은 민주화 목소리 못지않게 언론자유화 물결 또한 드높았다. 이때 전국적으로 일간지와 주간지들이 잇따라 창간내지 복간됐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속에 포항에서는 가장 먼저 <주간동해>라는 주간지가 창간됐다.

1988년 7월 18일 창간호(12면)를 낸 주간동해는 경북도의회의장을 지낸 장성호씨(현 포항 e병원 이사장)가 발행인으로, 언론인 김우원씨가 부사장 겸 편집인으로 각각 참여했다. 주간 동해는 창간 당시 총무국 5명, 광고국 6명, 편집 및 취재부 10명 등 모두 20여명의 직원들이 제작에 참여, 제대로 된 신문사의 체제를 갖추었다. 이로 인해 주간동해는 1969년 폐간된 포항지역 최초의 신문이자 주간지인 <동해경제신문>이후 포항지역 언론의 재건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진실보도’ ‘문화 창달’ ‘민의존중’이란 사시를 내건 이 신문 역시 경영상의 이유로 2년여 뒤인 1990년 말에 폐간됐다.

(5) 포항신보

포항에서 건설업을 하던 최종태씨가 <주간동해>에 이어 1989년 1월에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서 <포항신보>란 제호로 주간지를 창간했다. 이 신문은 최종태씨가 발행인, 임재준씨가 편집인으로 참여했으나 역시 경영상의 이유로 1년 뒤 폐간되고 말았다.

한편 최종태씨는 1994년 11월25일 <뉴스경북>, <포토 경북>이란 주간잡지도 발행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몇 년 뒤 폐간되었다.

(6) 기타

대구 <매일신문>의 주간생활정보지인 <라이프매일>이 2004년부터 라이프매일동부지사(대표 김재필)란 별도 법인을 만들어 포항지역 소식을 위주로 <라이프매일 동부판>을 발행해오다 2009년 6월 중단했다. 또 지역출신인 김무중씨가 <포항신문>을 부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3) 중앙 및 대구 일간지

(1) 중앙일간지

대부분의 중앙일간지들은 현재 포항의 읍·면·동에 신문지국(신문보급소)을 두고 있으며, 한국일보·세계일보·경향신문과 연합뉴스·뉴시스 등 통신사의 경우 현지 기자까지 상주시키며 취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중앙지 기자들은 포항에 상주하면서 경주·영덕·울진, 울릉군 지역까지 함께 취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대구 일간지

대구에 본사를 둔 일간지로는 매일신문·영남일보·대구일보·대구신문·대구연합일보 등이 포항에 취재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구권 일간지들은 포항 취재본부에 본부장과 함께 2~3명의 취재기자들을 상주시키며 취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대구 일간지들의 경우 90년대 까지만 해도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포항 지역 일간지들이 제자리를 잡아가면서부터 점차 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포항 소재 언론사 주소록 (2009년 12월 31일 현재 포항시 등록)

언론사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K B S 포 항 방 송 국	임 오 진	남구 상도동 655
포 항 문 화 방 송 (주)	남 정 채	남구 대잠동 907-4
C B S 포 항 방 송 본 부	임 형 섭	남구 대도동 640-7
(재)극동방송포항지사장	강 흥 식	북구 덕산동 122-4
H C N 경 북 방 송	이 영 희	북구 장성동 458-3
P C B 포 항 방 송	정 임 락	남구 대도동 135-150
경 북 일 보	정 정 화	북구 죽도2동 618-3
경 북 매 일 신 문	최 윤 채	북구 동빈동1가 60-14
경 북 도 민 일 보	김 공 가	남구 해도2동 82-4
매일신문동부지역본부	최 정 암	남구 대도동 640-7
영남일보동부지역본부	조 정 래	북구 죽도동 동양메디컬빌딩
대구신문동부취재본부	탁 청 태	북구 덕수동 35-17 3층
대구일보동부지역본부	신 준 민	남구 대잠동 986-5
전국매일지역본부	김 병 찬	남구 대잠동 978-6
시대일보포항취재본부	이 흥 우	북구 덕수동 118-5 희망소리사3층
대구시민일보동부취재본부	이 시 형	남구 대잠동 909-3 (3층)
경상매일동부취재본부	김 진 국	남구 대잠동 955-11

4) 대학학보

(1) 포항공대신문()

포스텍(구 포항공대) 학보사로 매월 1~2회(16~20면)발행하고 있다. 2009년 9월 2일 현재 총 280호를 발행하는 한편 영문판을 창간했다. 현재 박상준 주간교수, 김정기 간사와 함께 조규하 편집장 등 학생기자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교직원 뿐 만 아니라 타 대학 학보사, 포항공대 졸업생들에게도 발송되고 있으며, 국내 대학 학보 중에서는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연 혁

- 1987. 4. 1. 신문방송사 조직 설립, 남인식(화공) 교수 초대 주간 취임
- 1987. 제1기 수습기자 채용
- 1988. 4. 1. 김원중(인문) 교수 제2대 주간 취임
- 1988. 9. 방송사 분리 (방송사는 동아리로 변경)
- 1988. 10. 7. 포항공대신문 문공부 등록
- 1988. 10. 26. 창간호 발간 (인쇄 : 대구소재 경북인쇄소)
- 1990. 3. 16. 경북체신청 제3종 우편물 인가
- 1990. 4. 납활자 인쇄→정주기기(전산시스템)로 인쇄방법 변경
- 1991. 3. '원고지 없는 신문사'(PC로 기사 작성) 시작
- 1991. 5. 17. 경북인쇄소→대동일보(현 경북일보)로 인쇄소 변경
- 1991. 5. 발행주기 월간→격주간 변경
- 1993. 5. 매킨토시 시스템 도입, 자체 조판
- 1994. 11. 학내 전자통신망 PosB에 신문사 보드 개설
- 1995. 10. 포항공대신문 웹서버 구축, 인터넷에 기사 제공
- 1995. 11. 28. 매일신문사 주최 제1회 매일학생신문 대상 수상
- 1996. 3. 8. 지령 100호 발간
- 1996. 4. 10. 초대 편집국장 이광림(산경 3), 총무국장 백정현(신소재 3) 임명
- 1996. 5. 5. 대학신문 주간교수협의회 주최 1996 전국대학신문 콘테스트 보도부문 최우수상 수상
- 1996. 9. 1. 김원중 주간 전국대학신문 주간교수협의회장 취임(임기 1년)
- 1996. 11. 축쇄판(창간호~100호) 발간
- 1997. 5. 학생기자의 편집권 투쟁으로 3개월여 신문발행 중단 후 정상화
- 1997. 5. 19. 동아일보·나우누리 주최 사이버캠퍼스 홈페이지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 1998. 3. 1. 김병원(인문) 교수 제3대 주간 취임
- 1998. 5. 1. 제2대 편집장 박동수(컴공 3) 임명
- 1998. 9. 1. 권오대(전자) 교수 제4대 주간 취임
- 1999. 2. 1. 제3대 편집장 허용수(수학 3) 임명
- 1999. 3. 대판 8면→타블로이드 16면(칼라)으로 판형 변경
- 1999. 7. 1. 고정휴(인문) 교수 제5대 주간 취임
- 2000. 3. 24. 발행일을 수요일로 변경
- 2001. 3. 2. 강인석(화공) 교수 제6대 주간 취임
- 2002. 3. 4. 허종(신소재) 교수 제7대 주간 취임
- 2002. 6. 1. 이재성(화공) 교수 제8대 주간 취임
- 2003. 2. 28. 제4대 편집장 김정묵(화공 3) 임명
- 2003. 9. 1. 강인석(화공) 교수 제9대 주간 취임
- 2003. 11. 26. Digital Edition(창간호~200호) 발간
- 2004. 3. 1. 고정휴(인문) 교수 제10대 주간 취임
- 2004. 제5대 편집장 박종훈(산경 3) 임명
- 2005. 2. 16. 제6대 편집장 황희성(화공 3) 임명
- 2006. 2. 16. 제7대 편집장 김주영(물리 3) 임명
- 2008. 3. 1. 박상준(인문) 교수 제11대 주간 취임
제8대 편집장 이은화(화공 3) 임명
- 2008. 9. 학내 보도기사 실시간 제공(홈페이지)
- 2008. 11. 5. 창간 20주년 기념 특집호(제269호) 발간
- 2009. 1. 영자신문(The POSTECH Times) 창간 착수
Joshua Snyder(인문) 부주간(Vice Editor in Chief) 내정
- 2009. 3. 1. 제9대 편집장 조규하(화학 3) 임명 영자신문 제1기 기자 채용

(2) 한동대신문

정식명칭은 <한동대신문사(영문 : Handong Global University Press)>로 발행인은 김영길 총장이며, 편집인 겸 주간은 강사웅(경영경제학부)교수, 편집국장은 박성진(경영경제학부)군이다.

한동대학교 학생회관 102호에 있으며, 1996년 3월 4일 창간됐다. 2009년 5월 1일 현재 지령 130호를 발행했으며, 격주 8면(학기 중 2주 수요일 발간)을 발행하고 있다. 총 발행부수는 대략 3,000부로 교직원 및 졸업생들에게도 우송하고 있다.

역대 주간교수 허명수(1대), 김연종(2대), 최한우(3대), 김종록(4대), 유기선(5대), 신

은주(법학부), 박혜경(7대), 장규열(8대), 방청록(9대), 강사웅(10대)교수이다.

또 역대 편집국장은 김도일(1기), 김동경(2기), 김부열(3기), 손유정(3기), 권순재(4기), 홍지인(5기), 정원지(6기), 이성일(7기), 도병욱(8기), 진영균(10기), 전경완(11기), 이용찬(12기), 조내연(11기), 김혜영(14기, 사퇴), 손일영(15기), 이병원(16기), 박성진(17기)이다.

(3) 포대신문

포항대학의 학보인 포대신문은 1950년대 초 타블로이드판의 문예지로 창간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창간호가 없어 제호를 알 수 없으며, 1964년에 정상적인 학보형식인 <포항수산대학보>가 창간됐다.

그 후 1972년 전진문교수가 학보사를 재조직하고 년 2~3회 발행하는 한편 <포항실전학보>로 제호를 바꾸었다. 또 25호(1974)부터 <포전학보>로 개칭했으며, 1979년에는 교명이 포항전문대학으로 바뀔에 따라 제호를 <포대학보>로 바꿨다.

또 제165호(1989년)부터는 일부 면을, 166호부터는 전면 가로쓰기로 바꾸었다. 293호(2002년)를 마지막으로 1년간 컴퓨터로 보는 전자신문형태로 발간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후 대학구조조정으로 학보사와 교지편집실이 통합되어 <대학출판국>으로, 또 다시 교육방송국(EBS)와 재통합해 <대학언론국>으로 개편되었다.

이와함께 포대학보는 2002년 12월부터 신문크기가 아닌 A4 크기의 잡지형식(48쪽)과 함께 제호도 <좋은 느낌>으로 바뀌었다. 2009년 12월 현재 8호를 발간했다.

역대 주간교수는 다음과 같다. 초대 최영태(1969), 2대 한세광(1970), 3대 박태수(1972), 4대 전진문(1972), 5대 이기철(1978), 6대 배용일(1980), 7대 윤영대(1982), 8대 여태열(1983), 9대 최종현(1985), 10대 정창조(1987), 11대 윤영대(1998), 12대 성흥근(2000), 13대 김대하(2002), 14대 김제간(2003), 15대 노정구(2004~현재)교수 등이다.

• 연혁

- 1964. 4 포항수산대 학보 창간
- 1969. 11. 7 포항수산대 학보 제108호 발행
(발행인 김병윤, 주간 최영태, 편집부장 윤복수)
- 1970. 8. 27 제109호를 <포항수전학보>로 개칭 발간
- 1972. 7. 5 제111호를 <포항실전학보>로 개칭 발간
- 1972. 9. 1 학생회에서 ‘學報社’로 분리
 전진문 교수 주간 취임, 초대 편집장 신석규
- 1972. 10. 23 제112호 <浦項實專學報>로 제호 변경(서예가 소헌 김만호)

- 1974. 9. 19 문화공보부 정기간행물로 재등록. <浦專學報>로 제호 변경
발간호수 25호로 재간행 (실존자료 의거)
- 1975. 9. 12 정보문화상 제정
- 1975. 11. 29 제1회 정보문화상 시상
- 1979. 2. 28 <浦大學報>로 제호 변경
- 1981. 3. 학보사 신축건물(송도동 교사)로 확장 이전
- 1981. 11. 30 신문체로 인쇄 (제95호)
- 1982. 5. 24 지령 100호 기념 동해지구 남녀고교생 문예잔치기념식
(효자 영일대)
- 1987. 6. 15 지령 150호 발간
- 1989. 2. 10 전면 가로쓰기 인쇄(제166호)
- 1990. 3 현 죽천동 캠퍼스로 이전
- 1992. 7. 16 지령 200호 발간 기념식
- 2001. 12. 지령 293호 발간 후 연간 《좋은 느낌》으로 개편
- 2002. 12. 《좋은 느낌》 제1호 발간
- 2009. 12. 《좋은 느낌》 제8호 발간

(4) 선린대학신문

창학 정신인 믿음, 소망, 사랑의 정신과 이념을 선양하고 참신한 학내여론의 형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건전한 대학문화 창달을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11월 2일에 창간됐다. 현재 1년에 8차례 정도 발행하여 학생들의 의견과 대학생회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학보 발행에 필요한 제반사업도 벌이고 있다.

• 연혁

- 1992. 10. 신문방송 조직설립 및 이태조 교수 초대 주간 취임
- 1992. 11. 선린학보 창간 및 창간기념 간담회
- 1992. 12. 김상준 목사 제2대 주간 취임
- 1995. 박종수 교수 편집국 주간, 최진영 교수 방송국 주간 취임
- 1996. 손일호 교수 주간 취임
- 2002. 안혜정교수 주간 취임
- 2004. 이우윤교수 주간 취임 및 선린학보를 선린신문으로 제호 변경
대판 8면을 타블로이드 8면(칼라)으로 판형 변경
- 2006. 김식현 교수 주간 취임

- 2009. 타블로이드 판을 대판 8면으로 판형 변경
- 2009. 5. 13. 개교 40주년 제92호 특집호 발간

5) 월간지

1988년 언론자유화 조치 이후 포항에서도 일간지 및 주간지들의 창간과 복간이 잇따랐다. 이 같은 분위기속에 포항에서 몇몇 월간지들이 창간돼 지역 언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들 월간지들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계속 발행되지 못하고 수년 내에 모두 폐간되고 말았다.

대표적인 월간지로는 《월간 동해사회》(포항시 중앙동 석영빌딩 동해문화사), 《시사 경북》(포항시 대도동 640의 7), 《포항경제》(포항시 죽도2동 674의 8), 《경북경제》(포항시 대도동 640의 7) 등을 꼽을 수 있다.

대표적인은 월간지가 바로 1991년 9월 창간된 《동해사회》라고 할 수 있다. 총무 및 광고, 취재기자 등 20여명이 참여, 매호마다 평균 210여면, 1천여 부를 발행했다. 언론인 김우원씨가 발행인으로 참여한 이 월간지는 1996년 9월까지(통권 38호)까지 발행되다 경영상의 이유로 폐간됐다. 특히 월간 《동해사회》를 발행한 동해문화사는 1995년 8월에 대구·경북지역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경상북도 문화재도록》(총 3권, 4×6 배판) 3천질을 발행, 전국의 주요 기관에 배포하기도 했다.

그 외 1991년 10월 창간된 《포항경제》는 배동현씨가, 1991년 6월 창간한 《시사 경북》과 1994년 3월 창간한 《경북경제》는 신의웅씨가 각각 발행인이었다.

이들 월간지들은 모두 시사종합지로 포항을 중심으로 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시·군지역도 함께 취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들 월간지들은 광고수익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래 동안 발행되지 못했다.

제2절 출판

포항은 1972년 포항제철소 종합준공과 함께 포항 철강산업 단지가 계속 확장됨에 따라 본격적인 도시팽창과 인구증가가 이루어진다.

포항의 출판업 역시 포항이 본격적인 산업도시로 자리를 잡아가는 198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물론 1970년대까지 복인당인쇄소, 포항 인쇄소, 삼양문화사 등 몇몇 인쇄소가 있었으나 규모가 영세하다보니 책보다는 간단한 인쇄물 발행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관공서나 지역인사들이 책이나 홍보물을 펴내려고 해도 대부분 서울이나 대구 등 대도시 출판사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삼양문화사 등 몇몇 인쇄소들이 대도시 출판사에 버금가는 시설을 갖추기 시작함으로써 지역 출판업계를 리더 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때 포항의 출판문화를 주도한 것은 고(故) 손춘익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인들이었다. 이들 지역 문인들은 소설책이나 시집 등 개인 단행본을 펴내는가 하면 《포항문학》등의 정기간행물을 통해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1979년 8월에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당시 지부장 빈남수)가 발족되는 한편 1991년 9월에 《포항문학》 창간호를 발행했다.

초창기부터 포항문학을 이끌었던 손춘익은 1979년 동화집 《산비둘기네 동지》, 1980년 동화집 《이야기의 샘》 등 초창기 작품을 시작으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벌이는 한편 지역의 후배 문인들을 이끌었다. 이어 형산수필문학회가 《형산수필》을 창간하는 등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 문인들도 개인 작품집을 활발하게 펴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1989년에는 포항지역 젊은 지식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이재섭, 소장 이대환)가 《포항연구》라는 지역사회연구서를 창간했다. ‘과학적 지역성’ ‘민주적 진보성’ ‘창조적 대중성’ 등 3대 정신을 내건 《포항연구》는 지금까지 계간지로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또 (사)동대해문화연구소(초대소장 배용일)가 1994년 11월에 《동대해문화연구》를, (사)노거수회(회장 이삼우)가 《노거수》를, 포항지방의정연구소가 《자치 포항》(1999년 상반기 창간호)을, 포항시가 《열린포항》을 각각 창간해 지금까지 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포항시를 비롯한 포항지역 각 사회 및 문화예술단체, 대학, 기업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홍보지나 각종 학술서적들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어 포항의 출판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현재 포항에는 60여 개가 넘는 출판사가 포항시청에 등록되어 있으나 출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 등록 출판사 현황

(2009년 8월 현재)

사업체명칭	사업체소재지	대표자
삼 양 문 화 사	남구 상도동 18-257	김 용 석
경 북 일 보 (주)	남구 상도동 579-12	정 정 화
대 동 인 쇄	남구 상도동 615-2	김 영 훈
금 빛 출 판 사	남구 상도동 657번지	최 경 환
가 나 다 인 쇄 기 획 , 출 판	남구 오천읍 용덕리170-9	임 도 수
에 디 슨 진 학 연 구 소	남구 해도동 78-30	이 재 열
월 간 대 시 민	남구 송도동 417-39	이 상 모
에 본 출 판 사	남구 동해면 약전리327-1	김 동 열
한 국 족 보 출 판 보 급	남구 상도동 634-5	이 현 응
동 해 출 판 사	남구 대도동 26-50	이 남 범
(주) 포 항 전 화 번 호 부	남구 해도동 414-1	최 현 민
부동산경매컨설팅 (J.R.C)	남구 해도동 33-12 학산타워 1204호	정 승 길
태 백 출 판 사	남구 대잠동 979-5	변 경 도
생물학연구정보센터출판부	남구 효자동 산 32번지 포항공대도서관 제본실	전 무
북 포 키 드	남구 상도동 634-7	신 봉 철
이 아 이 코 리 아	남구 대잠동 988-5	김 영 운
청 암 기 획	남구 상도동 613번지	조 용 구
남 진 기 획	남구 대도동 10-25	최 영 식
창 조 그 래 픽 스	남구 해도동 433-1	권 순 열
아 르 코	남구 지곡동 601번지 테크노파크 본부동 317호	김 동 현
빠 른 아 이 광 고 기 획	남구 오천읍 구정리 6-3 제일맨션1차 101동 408호	정 한 섭
포 항 공 과 대 학 교 A V 실	남구 효자동 산 31번지	이 규 삼
황 금 출 판 사	남구 상도동 597번지	안 승 우
하 늘 기 획	남구 상도동 649-11 원양맨션 404호	김 유 경
줄 탁 동 기	남구 이동 645-5호	김 기 동
엘 리 야 출 판 사	남구 해도동 39-11 코아빌 205호	최 상 조
경 북 매 일 신 문 사 출 판 국	북구 동빈1가 60-14	서 종 열
도 서 출 판 용 화	북구 흥해읍 성곡리 1269번지	김 재 응
도 서 출 판 자 치 시 대	북구 창포동 637-3	김 만 수

사업체명칭	사업체소재지	대표자
동해문화사	북구 중앙동 42번지	김우원
(주)포항소식	북구 죽도동 51-9	이희원
밀알출판사	북구 두호동 635번지	이숙현
경락의학사	북구 청하면 서정리 685번지	남인섭
북부출판사	북구 동빈1가 71번지	계지영
글그라미문화사	북구 죽도동 660-26	김기현
지음	북구 덕산동 115-26	강영근
솔로몬유통	북구 창포동 제일그린상가 205호	박태중
포항문학사	북구 덕수동 55-3	김만수
제일출판	북구 용흥동 357-13 한라코아상가지하	이인숙
도서출판새암	북구 죽도동 340-56	김해석
엘리트기획	북구 죽도동 613-7	정윤미
나무	북구 장성동 서지구 66B5L	김현정
동인	북구 죽도동 703-30	손명수
한국즉보제작보급	북구 죽도동 203-20	김두영
조은출력	북구 덕산동 119-3	안영임
IHP인쇄광고기획	북구 신흥동 810-5	서경호
주식회사빨간책	북구 죽도동 558-20	윤경임
도서출판솔미	북구 덕산동 122-5	정현식
대한즉보제작출판	북구 죽도동 629-1	박상태
도서출판단풍나무	북구 장성동 1544-2	김용진
도서출판나루	북구 죽도동 615-6 유일프라자 304호	이재섭
어린이의마을	북구 동빈1가 71-96	정성일
도서출판기억	북구 대신동 977-4	이호희
LC논술교육	북구 장성동 13B 14L	조민성
도서출판논리속독연구학회	북구 죽도동 699-23	김기욱
거장들의학교	북구 흥해읍 남송리 3번지 한동대학교창업보육센터 405호	김재두
지티엘(GTL)	북구 흥해읍 남송리산 3번지 한동대학교 교목실	김대욱
한동대학교출판부	북구 흥해읍 남송리 3번지 한동대학교	김영길
선린교육	북구 흥해읍 대련리 385-6	박상홍
BR논리셈	북구 환호동 500-10	이정섭
도서출판만다라	북구 장성동 1544-2	김용진
도서출판봉이김선달	북구 장성동 1356-4	김봉욱
상가벨	북구 흥해읍 약성리 233-1 상용신세계그린타운 102동 407호	김영대
세이지	북구 흥해읍 성곡리 1161번지 삼도드림파크 102동 1805호	김미영

참고문헌

-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포항시, 1987.
영일군사편찬위원회, 《영일군사》, 영일군, 1990.
정진석, 《한국언론사》, 나남출판, 1995.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포항시, 1999.
KBS포항방송국, 《KBS 포항방송국 40년사》, 2001.
포항MBC, 〈일월의 빛소리〉《포항문화방송 30년사》, 2002.